중국, 석유제품 소비편중 심각

동부 및 중남부 60% 이상 차지 … 환경오염 방지도 신경

중국은 석유제품 소비의 60% 이상을 동부와 중남부의 해안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Guangdong이 11.24%, Shandong이 7.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angdong, Shandong, Jiangsu, Zhejiang, Sichuan 등 5개 지역의 수요가 각각 1000만톤을 넘고, 전체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수요도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동부와 중남부에 계속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등유 수요는 북부, 동부, 중남부가 전체의 약 83%, 북부와 중남부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의 주요 소비지역은 동부와 중남부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3대 석유제품의 수요신장률을 비교하면 휘발유는 중서부와 북서부가 약 25%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등유는 북부와 동부가 50% 이상, 남동부와 북서부는 현저히 감소해 수요신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는 북서부를 제외하고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북부와 중남부의 신장률이 40% 이상, 남서부는 46%를 기록할 전망이나 시장점유율은 5.6%에 불과하다.

석유제품 소비는 중부와 서부의 개발전략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신장률이 높은 남서부와 북서부의 석유제품 소비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개 지역에서 석유제품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 15년 동안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석유 소매시장에 진출하고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유시장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에서도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0년 7월 1일에 Beijing, Shanghai, Guangzhou에서 발효된 국가 휘발유 기준은 황과 납 허용치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고, 벤젠, Aromatic, Olefin 함유량도 제한되고 있다. 또 무연 휘발유에 효과적인 휘발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석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도 중요한 탄화수소 자원이 될 전망이다.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천연가스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수준이나, West-Gas-To-East를 이야기하는 등 크게 환영받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 소비 및 에너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석유 수요는 에너지 소비구조, 석유제품 소비구조, 석유가격 메커니즘, 환경보호 요구조건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6>